

^{더불어}민주당 다문화위원회		보도참고자료	
보도일시	2025.05.20.(화) 11:00 이후	배포일시	2025. 05. 19.(월) 18:00
위원장	양문석 (02-784-9640)	담당자	권태훈 정책단장 (010-7767-0064) 고결 선임비서관 (010-4783-7017)

보도참고자료

배포일시 2025. 05. 19.(월) 18:00

양문석
(02-784-9640)

권태훈 정책단장 (010-7767-0064)
고결 선임비서관 (010-4783-7017)

-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다문화위원회(위원장 양문석)는 5월 20일 경기도 안산에서 이민정책 7대 핵심과제 정책협약식을 한국이민정책학회(회장 임동진) 한국이민법학회(회장 최윤철) 한국이민행정학회(회장 손병덕) 등 이민분야를 대표하는 3개 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.
- 정책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다문화위원회 양문석 위원장,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(안산시을) 박해철 의원(안산시 병)을 비롯해 학회 관계자, 다문화 관련 연구소 및 이주민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.
- 양문석 위원장은 협약배경에 대해 “이민정책은 이제 인구위기와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으로 재 정립돼야 한다.” 며 “260만 이주민을 새로운 국민으로 포용함으로써 유권자 기반을 확장하는 대선 전략의 접근도 필요하다.”고 밝혔다.
- 이날 발표된 7대 이민핵심과제에는 ▲이민전담 정부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 ▲비자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정비 ▲중앙-지방 정부 간 이민행정 협력체계 구축 ▲이민관련

사법 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이 포함됐다.

- 공동개최한 3대 학회는 “부처 간 정책분산으로 인한 혼선과 행정 비효율이 심각하다.”며 “이민을 사회적 위협이 아닌 국가의 미래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번 정책협약을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.”고 입장을 밝혔다.
-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권태훈 단장은 “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이 부처 간 이기주의의 벽에 갇힌 이민정책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이민정책을 설계할 마지막 기회.”라고 강조했다.
- 다문화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시점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민정책 관계자, 학회 관계자, 이주민 단체 및 시민사회와 함께 추가 입법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.

※ 붙임1. 이민 3대 학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양문석 의원장(사진)



